



2021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 (Vol.23)

e-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CONTENTS



WEATHER

- 04 / 기상청장 기고문1- 바다 위 플라스틱 섬과 해양의 미래
- 06 / 기상청장 기고문2- 야외활동의 필수품, 거리두기와 자외선 차단



REPORT

- 08 /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4 /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0 /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5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SERVICE

- 28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 29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1년 5월 31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유용규 대전지방기상청장 직무대리
편집/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박창용(예보과), 이영미(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기창(예보과), 김정수(관측과), 김호(예보과), 박민규(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창용(예보과), 육순기(관측과), 이상걸(예보과), 이영미(관측과), 이준휘(기후서비스과), 강민준(예보과), 정지현(기획운영과), 조현경(기후서비스과), 최유미(기후서비스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저각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상청장 기고문 #1 바다 위 플라스틱 섬과 해양의 미래

전 세계 해양에
우리나라의 15배 면적에
달하는 쓰레기섬이 4개
이상 존재

1997년,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경기가 한창이던 여름날, 대회에 참가했던 찰스 무어는 바다를 횡단하던 중 깜짝 놀란다. 바다 한가운데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섬과 그 주위에 뒤엉켜 있는 수많은 비닐과 쓰레기들을 발견한 것이다. 태평양에 존재하는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섬(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순간이다. 이 쓰레기섬은 해마다 커져 현재는 우리나라의 15배 면적에 달한다. 또한, 안타깝게도 전 세계 해양에서 이러한 쓰레기섬이 4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우리가 해양을 무분별하게 오염시킨 결과물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해양의 남용은 쓰레기섬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해양의 산성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지구 물의 약 97%를 저장하고,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며, 전 세계의 날씨와 기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바다는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해안에서 100km 이내에 사는 인류의 40%를 지탱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바다에서 식량안보,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수없이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이 보내는 기후변화의 메시지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올해의 주제를 ‘해양, 우리의 기후와 날씨(The ocean, our climate and weather)’로 정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설립일을 기념하여 매해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로 정하고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구시스템에서 바다, 날씨, 기후의 연결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국제연합(UN) 산하의 기상, 기후, 물 전문 기관으로서 해양, 기후, 기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엔 ‘해양 과학 10년(2021~2030)’의 계획을 채택하고 오염 해소,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해양과 기후 연계 등 사람과 바다를 연결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해양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해양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이해를 축적하고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의 변화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50년 동안 해수 온도가 약 1.1℃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 대비 2.2배에 달한다.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의 변화에 대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기상청에서도 2021년 정책목표를 ‘기후탄력사회를 위한 기상기후정보 도약’으로 정하고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2023년까지의 동아시아 해양기후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해양영향 정보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적응 지원을 위해 파리협약에 따른 205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과 2100년까지 극한기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계부처와 협업을 일상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정보 등을 수집·제공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양,
우리의 기후와 날씨

The ocean,
our climate and weather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50년이 도래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아찔한 전망을 발표했다. 게다가 해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에 기후난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인간은 바다의 자원을 무한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오염시키고 훼손했다. 이로 인해 해양의 기후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류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이 주는 기후변화의 메시지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라도 실천해보길 바란다. 플라스틱과 쓰레기로 뒤덮인 끔찍한 섬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자외선은 파장대에 따라 UV-A, UV-B와 UV-C로 구별

영화 <엑스맨 울버린>으로 유명한 배우 '휴 잭맨'은 2013년 인스타그램에 코에 반창고를 붙인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피부암 투병 사실을 알리며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라고 강조했다. 영화 촬영 중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코 주위에 붉은 반점을 발견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암세포가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휴 잭맨이 진단받은 피부암은 기저세포암으로 햇빛에 오랜 기간 노출된 부위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호주 출신인 그는 야외활동을 즐기면서 그동안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다.

피부암은 주로 야외활동을 즐기는 서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캠핑과 등산 등 야외 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피부암 환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피부암 발생률은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낮설기만 한 피부암은 작은 점이나 단순한 피부트러블처럼 보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외선은 파장대에 따라 UV-A, UV-B와 UV-C로 구별된다. 성층권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UV-C는 모두 흡수되고 UV-B는 10%, UV-A는 95%가 지표에 도달한다. UV-A는 파장이 315~380nm로 피부 노화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계절에 상관없이 비슷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피부에 깊이 침투하여 붉게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피부를 눈에 보이지 않게 노화시킨다. UV-B는 파장이 280~315nm로 프로비타민 D를 비타민 D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며,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면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심하면 수포가 생기기도 하며, 심한 정도에 따라 흉터나 기미가 생기는 수도 있다.

이처럼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등 이로운 역할을 하는 동시에 피부노화, 피부암, 건조, 피부염, 잔주름, 기미와 주근깨 등을 생기게도 한다. 최근 대기오염으로 성층권의 오존량이 감소해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이 증가하여 인체의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활동해야 할 때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강렬한 태양 밑에서 작업할 때는 검정, 파랑, 빨강 등 진한 색의 헐렁한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다.

그럼,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

지난 10년간 기상청에서 자외선량을 분석한 결과, 구름이 조금 낀 날과 맑은 날은 거의 자외선량이 비슷했다.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은 오히려 자외선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구름이 부분적으로 있을 때 구름에 의한 반사와 산란으로 자외선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에도 평균적으로 맑은 날의 25% 정도의 자외선이 관측되었다.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자외선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자외선지수 서비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자외선지수 예측정보를
3일 단위, 하루 2회, 5단계로
구분하여 대응요령과 함께 제공

기상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15개 지점에 대해 자외선지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외선지수는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났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을 지수로 환산한 것이다. 자외선지수 서비스는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3일 단위의 자외선지수 예측정보를 하루 2회 06시와 18시에 위험도를 5단계(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위험)로 구분하여 대응요령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영산홍, 장미 등 화려한 꽃들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밖으로 유혹하는 요즘, 무엇보다 외출 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자외선지수 예측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나들이 계획을 세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현장 중심의 예보관 역량 향상을 위한 '신규 예보관 교육' 실시(3.2.~12.)

대전지방기상청은 3월 2일부터 12일까지 2주에 걸쳐 신규예보관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사이동으로 대전, 충남지역으로 온 신규예보관에게 호우, 대설, 풍랑, 폭염 등 충남지역의 예보기술을 전수하고, 지형에 의한 지역의 국지특성을 교육하였다. 또한, 실습훈련을 통해 현장특성을 충분히 숙지시켜 현장중심의 예보관 역량향상과 예보기술 보급에 힘썼다.



2021년도 지식나눔교육 제1차 선행학습 세미나 개최(3.11.)

대전지방기상청은 현장 중심의 지역 예보기술 전문성 향상과 예보지식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지식나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의 일환으로, 3월 11일 제1차 선행학습 세미나를 개최하여 늦봄 또는 초여름의 위험기상을 점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대면 업무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간 라이브 영상 강의와 영상 촬영을 병행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기상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원활한 방재기상업무 수행과 위험기상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대전지방기상청-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체결(3.23.)

대전지방기상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기상기후업무와 도로교통업무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 추진 중인 「도로교통 사고분석 지원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1차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3. 16.)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1차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시체험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전시체험물에 대한 연출과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 반영,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도출되는 등 완성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과 융합된 참여형 전시체험 콘텐츠 구성으로 최근 이상기후, 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한 이해 확산과 기상과학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3.17.)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3월 17일에 2021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수요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개발업체인 (주)월드텍, (유)나노웨더가 참석하여 사업 추진 계획과 주요 일정 등을 공유하며, 최적의 사업수행 방안 모색 및 가치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 어업종사단체 대상 해상특보 업무 설명회 개최(3.18.)

대전지방기상청은 수협중앙회 보령어선안전조업국과 협업을 통해 서해개랑안강방 협회,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통발협회 등 어업종사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상특보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충남 보령시 외연도 남동쪽 해상(면바다해역)에 대한 앞바다 포함을 주장하는 어업인들에게 기상관측선(기상1호) 관측결과와 현재 추진 중인 서해중부면바다 세분화 계획을 알리면서, 앞바다의 확장은 불가하지만 면바다 세분화에 의한 탄력적 특보 운영으로 어업인들의 활동이 증대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찾아가는 해양기상 간담회(3.23.~4.8.)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양기상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해양기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서, 충청남도청, 외연도행 여객선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관(10소)을 직접 찾아가 간담(해무)정보 제공 및 추진 계획, 녹도-외연도 항로 해상특성 분석 및 추진 계획, 해상 예보구역 세분화 계획 등에 대한 토의와 함께 기관별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1분기 기상관측세미나 개최(3.24.)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과 부서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세미나 시작 전 손소독 및 발열체크를 하고, 홍성기상대와는 영상회의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봄철 황사 관측방법, 황사관측 시 유의사항, 지진관측, 관측값 품질관리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충남지역 겨울철 대설 재분석 세미나 개최(3.24.)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지역에 특화된 예·특보를 생산하기 위해 충남지역의 계절별 위험기상과 지나간 예보 분석을 통한 예보능력 및 선제적 대응력 강화로 '충남특화 위험기상 사전·사후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월24일에는 지난해 겨울철 대설 특성을 재분석하면서 충남지역의 겨울철 날씨 특이점을 분석하고 예보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통해 예보관 역량 및 지역예보 정확도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 발간(3. 31.)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후특성에 대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2020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기상기후보고서에는 지역의 연·계절 기후특성, 이슈기후(가뭄, 폭염 및 열대야, 한파 및 눈), 이상기후(선선했던 7월, 역대 가장 긴 장마 등) 현상 등을 담아 지역의 최근 기후특성 경향에 대한 이해도 및 이상기후 분석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관계자 간담회 개최(3.26.)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도 서해기지 대행무역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태양광 생산량 증설, 발전기 교체 등의 자가발전시설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상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서해기지는 전력과 교통이 취약한 무인도로, 운영 시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관계기관의 상호간의 협업과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기상관측차량 활용 해당기상관측장비 사고예방 홍보(4.1.)

대전지방기상청은 봄철을 맞아 해양기상관측장비 사고예방을 위해 태안군 영목항, 백사장항 등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사고 최소화를 위해 기상관측차량이 지역민과 가까운 현장으로 이동하여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충남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기상관측 장비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상에 설치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민의 해상활동에 꼭 필요한 우리의 자산이기에 지속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상반기 소속기관 관측업무 지도점검(4.7.)

대전지방기상청은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기상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관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 관측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대상기관은 홍성기상대로 관측장비 관리와 운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관측환경 및 메타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지만, 앞으로도 관측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공주대학교 기상기사 자격증 특강반 운영(4.8.~15.)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예보기술 보급으로 미래 기상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4월 8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공주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상기사 자격증 특강반을 운영하였다.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단열선도 분석, 전문 해석 및 일기도 묘화, 일기도 해석법 등 기상기사 실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보기술 보급에 힘썼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1년 기상기후사진 · 영상 온라인 콘텐츠 제작(4. 13.)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전사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는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제38회 기상기후사진 · 영상 공모 입상작을 온라인 홍보가 가능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특수효과(VFX) 등을 이용하여 더욱 흥미롭게 구성해 보았다. 대전지방기상청을 가상 전시회장으로 활용하고 기상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콘텐츠가 제작되길 기대해 본다.



대전지방기상청 국지기상 연구를 위한 상반기 현장답사 운영(4.14.~5.28.)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폭염 특보의 원활한 운영 및 폭염 영향예보 가이던스를 개선하고, 도심 열섬효과 발생 가능지역 환경조사를 위한 상반기 현장답사를 2개월에 걸쳐 운영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의 방역조치에 맞추어 4인 이하로 팀을 구성하였고 총 6개 팀이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이를 통해 예보 관할구역의 지형을 파악하고 폭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하여 올 여름철 폭염 특보 운영 및 영향예보 고도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집행관련 상반기 자체교육 실시(4.15.)

대전지방기상청은 정기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20년부터 법 ·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4월 15일에 실시된 '예산집행관련 상반기 자체교육'에서는 각 부서 사업 · 회계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집행 유형별 업무절차에 대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알찬 교육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청에서는 생소한 예산편성부터 집행, 평가, 결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이해를 넓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교재 1차 세미나 개최(4.27.)

대전지방기상청은 체계적인 지역 예보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남권에 특화된 예보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표준교재-특보에센스'를 동영상 교재로 제작하고 있다. 4월 27일에 개최한 표준교재 1차 세미나는 자문위원과 과목별 강사진, 프로그램 운영위원들이 모여 2021년 표준교재 제작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영상 촬영 개선점 및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대전지방기상청 인공지능(AI) 기반 충남지역 대설 예측기술개발 공동연구 상반기 교류세미나 개최(4.28.)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과 함께 인공지능기반 충남지역 대설 예측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의 시작으로 상반기 교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남지역의 대설특성과 강설 판단요소 등에 대한 설명 및 충남지역의 대설특보 판단 가이던스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AI기반 충남지역 대설 예측모델 개발 과정 및 향후 예보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기상서비스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상재해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 운영(5. 7.)

충남대학교 생활과학교실과 협업으로 기후변화 교육의 상대적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지식, 나만의 기후변화 우산 꾸미기 활동,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자료와 콘텐츠로 다채롭게 준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대면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2차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5. 7.)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2차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차 사업에서 기상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신개념 과학문화 체험관 구축을 위해 '체험환경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후환경과 인간관계를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특화주제를 부각할 수 있는 영상 및 모형 등 전시 체험물을 제작·설치하는 2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추진방향 등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2021년 찾아가는 영향예보 설명회 실시(5.11.~12.)

대전지방기상청은 2021년 여름 방재를 대비하여 유관기관의 폭염 방재 업무 수행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찾아가는 폭염 영향예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올해에 시행하는 폭염 영향예보에 대해 설명하고, 영향예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음성서비스 시범운영, 영향예보 고도화 작업의 일환인 도시폭염 국지기상연구를 소개하면서,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상관측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자 교육(5.11.)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도입된 기상관측차량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의 협조로 기상관측차량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상관측차량 장애 시 긴급 대처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방법과 다년간 축적된 기상관측차량의 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기상관측차량의 효과적인 전원 관리법과 배터리 방전 시 조치사항 등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국지적인 위험기상을 선제적으로 관측하고, 산불, 화학사고 등 재난현장의 기상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1년 어촌지도자협의회 해양기상업무 홍보(5.12.~5.14.)

대전지방기상청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가 주최한 '2021년도 어촌지도자협의회'에서 해양기상업무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였다.

어촌지도자협의회는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관내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어촌지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분기마다 실시하는 행사로서, 해양기상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기상청 업무 소개, 해양기상 이론, 대전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기상정보의 활용 등을 설명하였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03

2021
March

3. 01. 3월 상순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서산: 1위 72.5mm, 세종: 1위 63.3mm, 홍성: 1위 61.4mm, 천안: 1위 55.8mm
보령: 1위 55.6mm, 금산: 1위 35.7mm, 대전: 2위 50.8mm, 부여: 3위 54.4mm

3월 월별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서산: 1위 72.5mm, 세종: 1위 63.3mm, 홍성: 1위 61.4mm, 천안: 1위 55.8mm
보령: 1위 55.6mm, 대전: 3위 50.8mm, 금산: 3위 35.7mm, 부여: 4위 54.4mm

3. 10. 매화 만발 (작년대비 2일 빠름)

3. 16. 진달래 개화 (작년과 같음, 평년대비 13일 빠름)

3. 18. 개나리 개화 (작년대비 1일 빠름, 평년대비 8일 빠름)

3. 19. 진달래 만발 (작년대비 1일 빠름)

3. 22. 개나리 만발 (작년과 같음)

3. 23. 벚나무 개화 (작년대비 1일 빠름, 평년대비 13일 빠름)

3. 26. 벚나무 만발 (작년대비 3일 빠름)

3. 27. 3월 하순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서산: 3위 34.4mm, 홍성: 1위 31.6mm, 세종: 1위 20.0mm

3. 29. 대전 · 충남 · 세종 대표 벚꽃 군락지 계룡산 벚꽃 개화

3. 31. 3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서산: 1위 23.4℃, 세종: 1위 23.3℃, 대전: 2위 24.4℃, 부여: 2위 24.0℃
홍성: 2위 22.1℃, 천안: 3위 23.2℃, 보령: 3위 21.7℃, 금산: 4위 23.6℃

3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23.3℃, 서산: 1위 23.4℃, 홍성: 2위 22.1℃, 대전: 3위 24.4℃
부여: 3위 24.0℃, 천안: 5위 23.2℃, 보령: 5위 21.7℃

26-27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04

2021 April

- 4. 01. 대전 · 충남 · 세종 대표 벚꽃 군락지 계룡산 벚꽃 만발
- 4. 03. 4월 상순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서산: 4위 42.5mm, 홍성: 1위 38.3mm, 세종: 1위 27.3mm
4월 상순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홍성: 1위 13.1mm, 천안: 2위 12.3mm
- 4. 21. 4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5위 29.7℃, 세종: 2위 28.7℃, 서산: 4위 28.1℃, 홍성: 2위 27.9℃
4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세종: 2위 28.7℃, 서산: 4위 28.1℃, 홍성: 2위 27.9℃
- 4. 22. 4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4위 29.9℃, 세종: 1위 29.8℃, 홍성: 1위 28.0℃
4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4위 29.9℃, 세종: 1위 29.8℃, 홍성: 1위 28.0℃
- 4. 28. 아까시나무 개화(작년대비 8일 빠름, 평년대비 9일 빠름)
- 4. 30. 4월 하순 일최대 풍속 극값(순위) 경신
보령: 3위 15.2%, 부여: 4위 9.9%, 홍성: 2위 8.6%, 세종: 2위 6.7%
4월 월별 일최대 풍속 극값(순위) 경신
보령: 5위 15.2%, 홍성: 4위 8.6%, 세종: 3위 6.7%
4월 하순 일최대 순간 풍속 극값(순위) 경신
보령: 2위 20.8%, 부여: 1위 18.3%, 천안: 2위 17.7%, 금산: 2위 17.1%
홍성: 2위 15.6%, 세종: 1위 12.0%
4월 월별 일최대 순간 풍속 극값(순위) 경신
보령: 4위 20.8%, 부여: 4위 18.3%, 천안: 3위 17.7%, 금산: 3위 17.1%
홍성: 5위 15.6%, 세종: 1위 12.0%
4월 하순, 월별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서산: 1위 29.1mm

05

2021 May

- 5. 03. 아까시나무 만발(작년대비 7일 빠름)
- 5. 05. 5월 상순 일최대 순간 풍속 극값(순위) 경신
금산: 5위 14.0%
- 5. 08. 5월 상순 일최대 순간 풍속 극값(순위) 경신
천안: 5위 14.4%, 홍성: 5위 13.6%
- 5. 14. 5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1위 31.8℃, 부여: 3위 31.4℃, 세종: 1위 30.5℃, 홍성: 4위 29.2℃
서산: 5위 30.0℃,
5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30.5℃
- 5. 20. 5월 중순 일최대 순간 풍속 극값(순위) 경신
홍성: 5위 12.5%

※ 개화관측기준: 한 나무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
 ※ 만발관측기준: 한 나무에서 80%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
 ※ 홍성: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개시일: 2017. 11. 01.)
 ※ 세종: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개시일: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 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
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
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1. 5.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세천(643), 문화(642), 장동(648), 세종전의(629), 세종연서(611), 세종금남(496), 세종고운(494)
계룡산(659), 계룡(636), 논산(615), 연무(644), 양화(635), 서천(614), 춘장대(646)
홍성죽도(610), 대천항(657), 서부(645), 홍북(608), 원효봉(694), 태안(627), 외연도(669)
정산(691), 호도(578), 근흥(607), 만리포(658), 옹도(667), 신평(637), 안도(666), 삼시도(609)
대산(606), 당진(616), 청양(618), 송악(493), 아산(634), 예산(628), 성거(617),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북격렬비도(229)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